



경준해, 전 성 형식주의 정돈 기층 부담 경감 사업회의서 강조

착실 실속 실효의 선명한 방향을 확고히 수립하고 형식주의 정돈해 기층 부담 경감을 계속하여 심화 확대해야

호옥정 주국현 참석



최근이래, 성당위 서기 경준해는 여러차례 성당위 상무위원회 회의 등 부동한 장소에서 형식주의를 정돈하여 기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근일 경준해는 또 전 성 형식주의 정돈 기층 부담 경감 사업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중앙 차원의 전문항목 사업 기제의 포지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며 착실하게 일하는 것을 중시하고 실속있게 일을 하며 실효를 추구하는 선명한 방향을 확고히 수립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형식주의를 정돈하여 기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심화, 확대함으로써 기층 간부들이 책임지고 성과를 내고 일하고 창업하도록 더욱 잘 격려해야 한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 성정협 주석 주국현이 회의에 참석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형식주의를 정돈하여 기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포치한 중대한 정치임무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에 여러차례 중요 지시를 내렸고 얼마전 호남과 중경에서 시찰할 때 또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여 우리가 사업을 잘 수행하는데 과학적인 인도와 근본적인 준수를 제공했다. 우리는 깊이 배우고 심각하게 터득하며 실제와 결부하여 실행을 잘 틀어쥐면서 실제 행동으로 '두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해야 한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형식주의를 정돈하여 기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심화 확대하려면 반드시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깊이있게 시달하고 성당위의 '략작관철의 해' 및 '기층 부담 경감의 해' 요구에 따라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협동해 힘을 발휘하여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효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한다. 형식주의를 정돈하는 데 큰 힘을 넣고 주제요양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과 당규를 학습교양을 전개하는 것을 긴밀히 결부하여 엄격한 기조, 엄격한 조치, 엄격한 분위기를 시종 유지해야 한다. 중앙에서 명확히 한 11 개 방면의 두드러진 문제와 중앙에서 통보한 전형적인 사례를 참답게 대조하여 하나의 사례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

바로잡으며 착실하게 정돈 개선해야 한다. '순결의 형식주의', 산더미처럼 많은 문서와 회의, 한꺼번에 몰려드는 감독검사와 조사연구, 지나치게 흔적을 남기고 층층이 지표표를 올리는 등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형식주의 사유의 관성을 전환시키는 데 큰 힘을 넣어 형식주의를 방지, 정돈하는 것을 정책제정, 임무포지, 시달독촉, 심사검사, 문책상벌의 전반 사슬에 관통시켜 각급 지도간부들이 정확한 정치업적관을 수립, 실천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한다. 발전이 수요하고 개혁이 시급하고 기층이 바라고 민심이 지향하는 공성(共性) 문제를 잘 해결함과 아울러 번거로운 허례허식의 '헛수고'를 단호히 줄이는 한편 발전을 추진하는 '실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 기층 부담 경감을 위해 큰 힘을 들이고 '3 빼기 1 규범' 규정의 실시를 잘 틀어쥐고 기층 데이터못(数据池)을 다그쳐 구축하여 기층 데이터 일차적 생성, 여러차례 여러 부문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데이터 장벽을 철저히 타파하고 보고서가 많고 중복 보고하는 등 기층을 괴롭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직능부문과 사무처리 창구의 위민봉사(为民服务)

효를 대폭 향상시키고 향진(加进)의 권한과 책임 목록을 구축, 건전히 하며 지도방식과 사업방식을 한층 더 혁신하고 계속하여 자원이 기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추진하고 써비스 시설을 보완하여 진정으로 부담 경감 성과가 기층 간부와 인민대중들에게 더욱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 각 부문에서는 조직지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책임을 단단히 실제적으로 다지며 심사평가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고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정돈, 개진을 잘 틀어쥐며 지도조사, 암행 추출조사 등 방식으로 사업의 실행을 독촉해야 한다.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통보를 일상화하고 한 사건에 대해 통보하면 전체에 대해 경고하는 교양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장기적인 효과 기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형식주의를 다스려야 한다.

성당위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협 책임 동지, 성법원 원장, 성검찰원 검찰장, 성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吉林일보

'5.1'절 연휴 기간 길림성 문화관광시장 뜨거웠다

국내 관광객 1,836 만 3,000 명 접대, 동기 대비 118.7% 증가

국내 관광수입 174 억 7,000 만원, 동기 대비 160.3% 증가

'5.1'절 연휴 기간 길림성 문화관광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치솟았다. 전 성적으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1,836 만 3,000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7% 증가했다. 국내 관광수입은 174 억 7,000 만원으로 동기 대비 160.3% 늘어났다. 성의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35.6% 로 지난해 '5.1'절 연휴 기간에 비해 17% 제고되었다.

연인원 561 만 8,900 명 - 중점관광지 인산인해

연휴 기간 전 성 5A, 4A 급 중점 관광지에서는 연인수로 561 만 8,900 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여 동기 대비 73% 늘어나고 관광수입은 3 억 4,900 만원에 달해 동기 대비 79% 증가되었다.

장백산관광지의 관광객 접대, 영업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 221% 증가했다. 차간호관광지의 관광객 접대량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장춘 정월담관광지의 관광객 접대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춘동식물원에서 접대한 관광객과 영업수입은 동기 대비 각각 104%, 168% 증가되었다. 길림성 북산풍경구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동기 대비 285% 증가되었다. 연길 모아산(古洞) 문화관광지의 관광객 접대인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만과송화호휴양지에서 접대한 관광객과 영업수입은 동기 대비 각각 334%, 229% 증가되었다. 북대호휴양지에서 접대한 관광객과 영업수입은 동기 대비 각각 261%, 115% 증가되었다. 장백산 화미명승지휴양지의 관광객 접대, 영업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63% 증가했다. 고구려문물고적관광지의 관광객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룽정산문화관광구의 관광객은 동기 대비 35% 증가되었다. 장춘위만항공박물관의 관광객은 동기 대비 33% 증가되었다. 장춘영화촬영소옛터박물관의 관광객과 영업수입은 동기 대비 각각 28%, 29% 증가되었다.

증가폭 602% - 문화관광거리 인기몰이

중국이동 오통 빅데이터의 전국 3,800 여개 상권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길림성의 '쇼핑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장춘시 상권의 일평균 인파는 602% 증가해 전국적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장춘 홍기가 상권의 인파는 연인수로 약 83 만명에 달했고 2 억 4,900

만원의 소비를 이끌었다. 계림로 상권의 관광객 류동량은 약 40 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소비액은 2,000 만원을 넘겨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하였다. 길림시 하남가 야시장은 5월 1일에 장식후 새롭게 개장했는데 일평균 관광객이 12 만명을 초과해 동기 대비 50%를 초과했다. 매하구 동북불야성은 룡의 해 원소와 결부하여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일평균 관광객이 연인수로 19 만명을 초과해 동기 대비 73% 증가되었다. 연변대학 왕흥탄박물관의 일평균 관광객은 약 6 만 5,000 명이였다. 통화 룡흥리 문화관광거리는 제 1 회 '룡흥리음악제'를 개최하면서 연인수로 근 50 만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사평 인흥리 문화관광거리는 테마조명쇼를 새롭게 선보였는데 일평균 관광객수가 9 만명에 달했다. 장백산 이도백하진은 연인수로 14 만 4,100 명의 관광객을 접대, 동기 대비 101% 증가되었다.

연인원 80 만 4,100 명 - '박물관관광' 새로운 조류로

'5.1'절 연휴 기간에 전 성적으로 66 개 박물관들이 개방 시간을 연장했는데 그중 17 개는 18 시 이후까지 개방 시간을 연장했다. 전 성 각 지 박물관들에서는 연휴 기간에 167 회의 활동을 조직, 전개하여 연인수로 80 만 4,100 명의 관중을 접대, 동기 대비 15% 증가되었다. 길림성 박물관은 역대 달소제 회화작품전을 새로 출범시켜 연인수로 6 만 500 명의 관중을 접대했다. 길림시박물관은 연인수로 3 만 4,000 명의 관중을 접대,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길림시 문묘박물관은 연인수로 2 만 9,100 명의 관중을 접대, 동기 대비 603% 증가되었다. 사평전역기념관은 연인수로 2 만 4,900 명의 관중을 접대했다. 연휴 기간 전 성 도서관들에서는 연인수로 16 만 4,600 명의 독자들을 접대하였는데 그중 길림성 도서관은 연인수로 3 만 900 명의 독자를 접대하였다. 전 성 각급 문화관(역) 들에서는 523 차례의 대중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연인수로 251 만 3,000 명이 참여하였다.

문화관광장소에서 상업거리에 이르기까지, 주변관광에서 먼거리관광에 이르기까지 ... 올해 '5.1'절 연휴기간 길림성에서는 도합 260 여개의 문화관광 행사를 기획, 개최하고 192 차례의 문예공연을 펼쳤으며 새로운 업데이트 새로운 장면들이 끊임 없이 융솟음쳐나오며 길림성 문화관광의 소비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시켰다. /吉林일보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자 화기를 맞은 장춘공원의 툰립이 아름다운 꽃동산을 이루면서 그윽한 꽃향기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吉林일보



심양과 장백산 이도백하진을 잇는 심백고속철(沈白高铁) 관통 작업이 현재 긴장히 진행중, 5월 상순 관통될 예정이다. 료해에 따르면 심백고속철이 개통된 후 고속철을 리용해 동북의 관광명승지인 장백산 기슭까지 직접 달을 수 있다. 따라서 북경-장백산 최단 운행시간은 4 시간 이내로 단축되며 심양-장백산 최단 운행시간은 1 시간 반 좌우로 단축된다. /吉林일보